

머신러닝

1주차 a 과제

경영정보학과

60211356

장유진

이한준 교수님

#### 1. 모델명

: 미술작품 시대 판독기

### 2. 모델링크

https://teachablemachine.withgoogle.com/models/0wuDR8sud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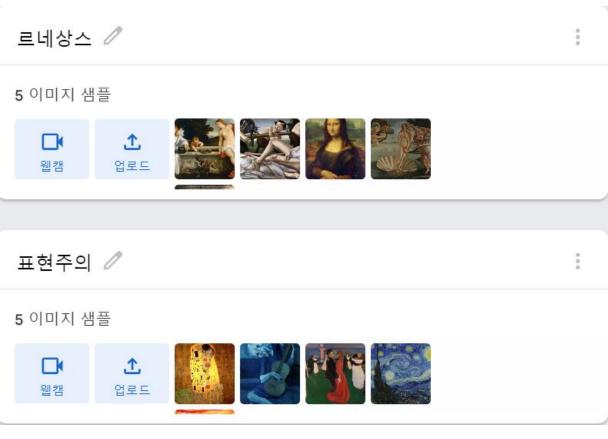
## 3. 모델 제작 동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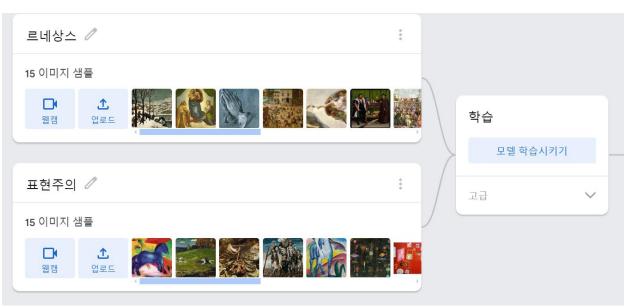
평소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, 서양 미술 작품을 볼 때마다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 궁금했을 때가 많았다. 당대의 사회적, 역사적 배경 및 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미술 작품이 가지는 사상이 변해가는 것을 미술사조라고 한다. 나는 과연 이러한 기술을 통해 작품의 미술사조, 즉 예술적인 영역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,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모델을 제작하였다.

## 4. 학습 방법

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보이는 '르네상스'의 작품과, '표현주의'의 작품을 구분하도록 각 시대의 작품을 15개씩 입력하였다.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'비너스의 탄생', 파올로 베로네세의 '가나의 혼인잔치',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'카네이션을 든 성모' 등을 참고하였다. 또한 표현주의의 작품은 파블로피카소의 '기타치는 노인', 바실리 칸딘스키의 '청기사', 에드바르 뭉크의 '흡혈 귀' 등을 참고하였다.

데이터 양을 적게 사용한 모델은 각 시대의 작품을 5개씩 입력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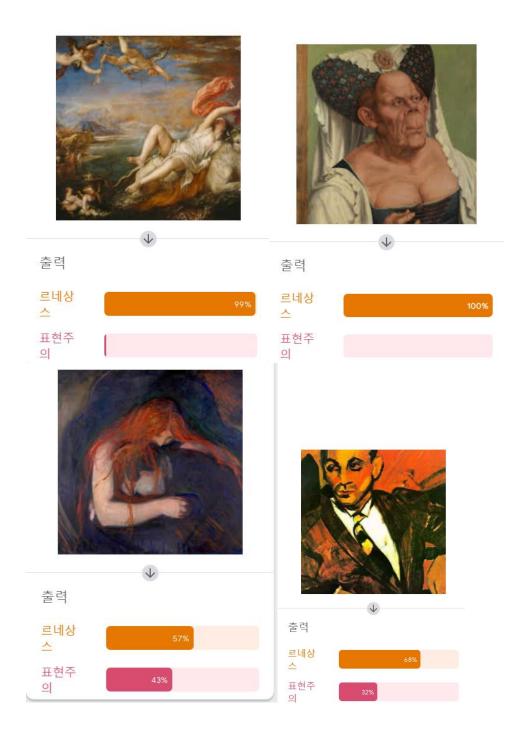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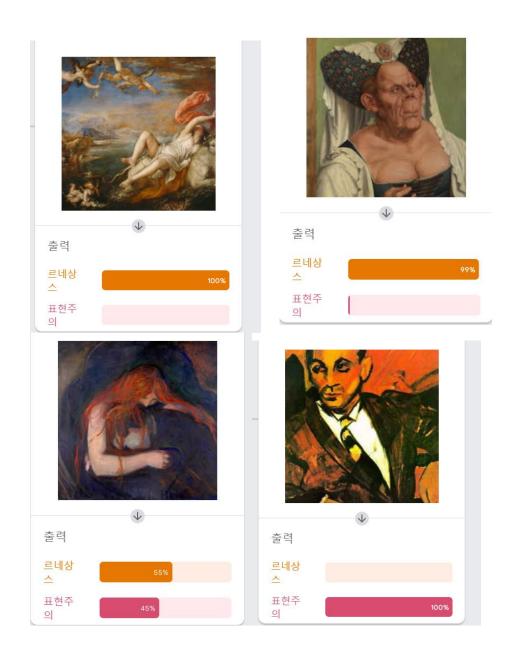
# 5. 모델 테스트 결과

각 시대별로 두 작품을 선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.

아래는 표본을 5개를 입력한 모델의 테스트 결과이다.



15개의 표본을 입력한 모델의 테스트 결과이다.



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은 모두 올바르게 판단하였으나, 표현주의의 작품은 각각 0%와 50%의 정답 확률을 보였다.

## 6. 총평 및 소감

사실 하나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. 그림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형태 등에서 시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, 당대의 사회적, 정치적 상황 을 단순히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. 그럼에도 꽤나 높은 정답 확률을 보인 것은 정말 놀라웠다. 표본을 늘 린다면 100%에 가까운 정답 확률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.

테스트 중 르네상스의 첫 번째 작품은 표본의 개수를 증가시킨 후 정답 확률이 1% 증가하였으나 두 번째 작품은 오히려 정답 확률이 1% 감소하였다. 이는역시 시각적인 부분에만 의존한 판단에 의한 오류일 것이다.

표현주의의 첫 번째 작품은 조금이지만 정답 확률이 증가하였으며, 두 번째 작품은 정답 확률 32%에서 100%로 증가하였다. 표본의 개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.

부가적인 설명을 입력 받지 않은 기계가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시대를 구분 할 수 있다는 것, 예술적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서 놀라움을 느꼈다.